

1. 필그림토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지구촌교회 이준일 형제의 “그래도”라는 찬양을 듣겠습니다.
2. 오늘의 성경본문은 **요6:60-71**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 드라마 바이블

요6:60-71 오병이어 기적 이후

- 오병이어 기적은 대단한 기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 그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태워 보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 제자들은 배타고 가다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물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없자, 배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들에게 설교말씀을 주셨는데, 이 설교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 말씀이 걸림이 되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6절.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 이들은 오병잉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 예수님의 설교가 걸림이 되었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기에?

26-27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 이들은 오병이어 현장에서 가버나움까지 배타고 찾아온 사람들. 열심히 치자면 대단한 열심.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동기가 무엇이냐’ 질문.
- 잘못된 동기로 얼마든지 열심낼 수 있다.
- 썩을 양식을 위해 열심내지 말라는 뜻. 오해하지 말 것: 양식이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다. ==>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 썩을 양식.
- 일용할 양식 필요. 위해 기도해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

•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냅니까?

- 예수를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동기가...
-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썩을 양식, 썩을 명예, 썩을 자존심을 위한 것?. 필요없다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땅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생의 문제를 강조하십니다
 -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 내 일상의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
 -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자리잡으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
-
-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된게 이 말씀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하자, 사람들은 광야에 내린 만나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당신도 그런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질문.
 - 예수님은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 하시면서, 이어서 자신은 만나보다 더 중요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41-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

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요? 사람들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 이들은 예수를 믿지 못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부모를 안다는 것. 어디서 자라났는지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는 것.
-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 소위 증거들을 댁니다.
 - 과학을 이야기하고, 이기적 유전자를 말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목사들의 비리를 말합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게, 사실이면서도 진실이 아닌 증거들은 많습니다. 교회의 비리, 사실일 수 있으나,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목수라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거부하고 알량한 경험으로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 씀이었습니다.

51-52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 사람들은 자기 살을 먹으라는 예수의 말씀, 자기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도무지 소화가 안되는 말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떡을 먹어야 배부르듯이,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 결국 걸림돌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 오병이어 기적 등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예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먹으라, 자기를 믿으라, 생명의 떡인 자기를 먹으라,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무언가 위안을 받고 좋은 말씀을 듣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남습니다.

-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떡이 떼어져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듯이, **예수의 살은 찢겨져야**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 손과 발에 못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찢어진 예수의 살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
 -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
 -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
 -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 결국 예수님임 말씀이 걸림이 되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다고 되어있습니다.
66절.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 여기 제자는 꼭 열두제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당시에 누군가의 가르침을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제자들, 서기관들의 제자들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 여기서의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청중들을 말합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배타고 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 이 구절이 슬프게 다가옵니다.
- 오늘날에도 무엇인가 마음에 걸려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시는 예수 근처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렇게 위대한 오병이어 기적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말씀을 믿고 계속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열두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
-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수 많은 스승이 있고 랍비가 있고 선생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 어떤 이들은 예수의 말씀에 걸려, 혹은 예수의 존재에 걸려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가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그를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 인류사의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블레이크 파스칼은 17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 그는 과학자였고, 수학자였으며, 또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열두 살에 독학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해하고, ‘파스칼의 정리’가 포함된 「원추곡선론」을 열여섯의 나이에 발표했고, 그의 나이 열아홉에 세무장관이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 오늘날의 컴퓨터의 기초가 된 계산기를 발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파스칼의 원리’가 포함된 「유체의 평형」 등 다양한 연구 업적으로 젊은 학자로서 주목을 받으며 명성을 날렸다.
 - 무엇보다 그의 철학적 사유를 기록한 <팡세>는 지금도 전세계에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 세상을 떠난 직후, 입고 다니던 코트 안쪽에 바느질해 붙인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어느 날 밤에 겪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열시 반부터 열두시 반까지 ... 철학자나 좀 배웠다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확신. 느낌. 기쁨. 평안.....의로운 아버지시여 세상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환희, 환희, 환희, 환희의 눈물. 나는 그에게서 떠나 있었다...원컨대 나는 영원히 그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에게서 떠나 있었다. 나는 그를 피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원컨대 나는 절대로 그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